12-04 (통권 제 475호)
2012. 1. 27.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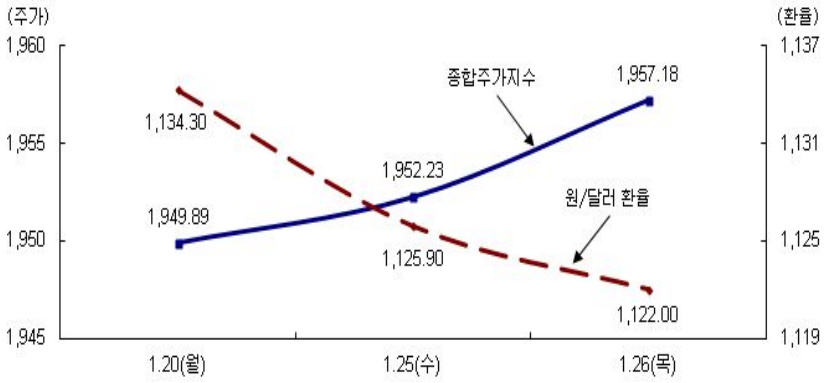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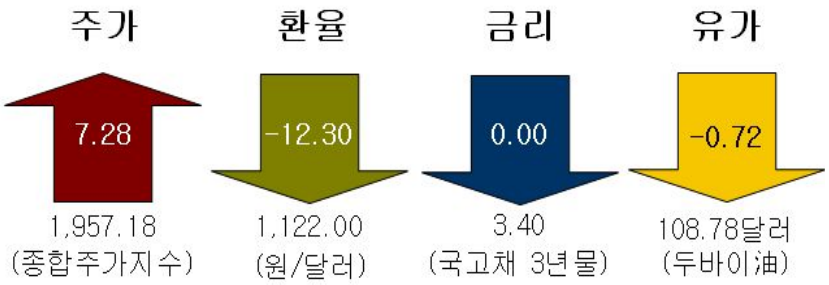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확대와 대응 과제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0~1.2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확대와 대응 과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한 재 진 연 구 위 원 (2072-6225, hzz72@hri.co.kr)
이 부 형 연 구 위 원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확대와 대응 과제

■ 중국 경제, 경착륙 논란 지속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9.2% 로 나타나 전년도10.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다소 약화되고 있다. 단, 현재의 중국 경제는 경기선행지수와 PMI(제조업)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실물경기 둔화세가 가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증가세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여전히 경제 경착륙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1월 24일 IMF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9.0%에서 8.2%로 0.8%p나 낮춰 전망함으로써 중국 경제 경착륙 논란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경제의 대내외 경착륙 리스크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가시화된다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내 요인) 첫째, '역의 부의 효과(negative wealth effect)'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여력 약화 위험도 상존해 있다. **둘째, 과도한 투자의존형 경제모델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중국 경제를 경착륙 시킬 수 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반면 투자 기여도는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 상승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지속될 경우 과도한 투자의존형 경제모델 붕괴되면서 중진국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지방부채發 국가재정 부실화 우려도 상존한다.** 2012년까지 지방정부 부채 만기상환액은 4.4조 위안에 달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등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를 이유로 지방정부 부채상환 지원을 지연시킬 경우 지방정부의 은행대출 만기상환이 늦어지면서 은행부실을 유발, 국가재정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 **넷째,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활용 증가로 기업신용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 정부의 긴축강화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그림자금융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업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정책 운영의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대외 요인) 첫째,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및 수출기업 업황 악화가 중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

국 경제의 회복세 지연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임금, 원자재 등 생산원가가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면서 수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둘째, 중국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분쟁 악화로 對美 수출에 큰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9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보복관세 조치 이후 2011년 12월 중국이 對美 수입차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가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에도 위안화에 대한 환율 절상 압력은 물론 美·中 간 상품교역을 둘러싼 분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셋째, 영유권 분쟁 심화로 중국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ASEAN으로의 수출 악화가 우려된다.** 중국은 일본과는 센카쿠열도, 아세안 일부 국가들과는 남중국해 시사군도 영유권 분쟁 등 주변국들과의 정치 외교적 분쟁이 고조되면서 이들 국과들과의 교역 악화가 우려된다.

■ 대응 과제

중국 경제가 성장률 7%대로 급락하여 경착륙한다면 국내 경제성장률도 3%대 중반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더라도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1%p 전후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전제로 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對中 수출 감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수출 안전망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 보험 및 무역 금융 대출 확대 등 수출 지원 금융 기능 강화를 통해 전기기기, 자동차, 석유화학 등 對中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중동, 러시아, ASEAN, 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은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안정적인 외환 운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세에 있더라도 기존의 모니터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對中 경제협력 확대 노력 지속을 통해 기존 수출시장 유지 및 확대를 꾀해야 한다. 2012년은 韓·中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간 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호기를 활용하여 기존 수출시장 유지는 물론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 수교 20주년 활용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기업들은 위기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대중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중국 경착륙에 대비한 컨틴전시 프로그램(비상경영 프로그램) 마련,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전략 상품개발, 현금경영 강화 등 위기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1. 중국 경제, 경착륙 논란 가속

○ **(중국 경제 둔화 가시화) 소비, 투자 증가 약화 등 내수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증가세도 급감하는 등 중국 경기 둔화세가 가시화**

- 중국 경제성장률 9.2%로 하락
  · 소매판매와 수출은 2010년 각각 18.4%, 31.3% 증가에서 17.1%, 20.3% 증가로 증가율이 각각 1.3%p, 11%p 둔화
  · 2011년 투자 증가율은 2010년 24.5%보다 0.7%p 하락한 23.8%에 그침
  · 이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4%에서 2011년 9.2%로 1.2%p 하락

- 경기선행지수와 PMI(제조업)지수는 2011년 1월 각각 101.2p, 51.7p에서 2011년 12월 현재 100.2p, 48.7p로 하락,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중국 경제 경착륙 논란 가속) 주요 중국전문가들이 2012년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예상하면서 이에 관한 논란이 가속화**

-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 참석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2012년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주장
  ·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와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는 투자와 수출 중심의 경제 모델을 가진 중국이 중진국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
  ·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와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2012년 중국 경제가 국가채무 디폴트에 직면, 경제성장률이 7%를 밑돌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나 GDP 성장률이 6~8%대로 급락하고, CPI가 5~8%대로 급등할 경우를 중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정의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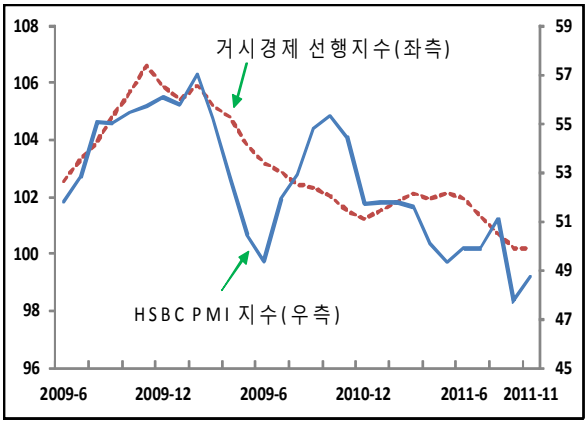
(단위 : 증감율, %)

구분	2008	2009	2010	2011
GDP	9.6	9.2	10.4	9.2
소매판매	21.6	15.5	18.4	17.1
투자	26.1	30.5	24.5	23.8
수출	17.2	-16.0	31.3	20.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주 : 투자는 도시고정자산투자를 의미.

< 중국의 경기선행 및 동행지표 >

(단위 : p)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2. 중국 경제의 대내외 경착륙 리스크

① 대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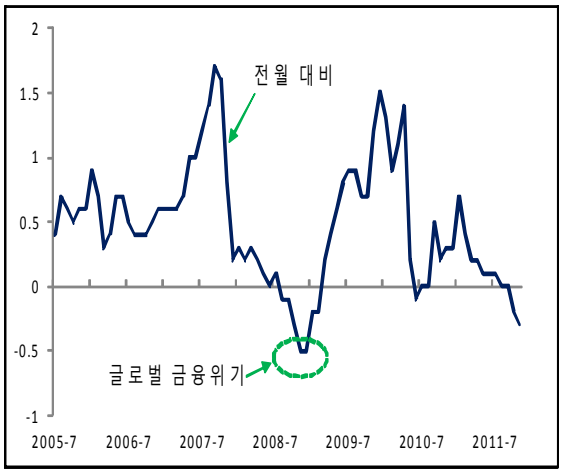
○ **(역의 부의 효과 가능성 증대) 주택 가격과 주가 등 자산 가격 하락세 지속과 물가 상승에 따른 '역의 부의 효과(negative wealth effect)'로 소비 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

- 한때 심각한 과열 상태를 보였던 중국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은 2011년 하반기로 가면서 급격히 냉각된 후 회복세 지연
  - 2011년 상반기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1)]
  - 상해종합지수도 2007.10.16일 역사상 최고점인 6,092p로 급등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700p대로 급락한 후 회복 지연

- 소비자물가지수도 2010년 말부터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 가중
  -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1년 7월 6.5%를 기록한 후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4%대 이상의 고수준을 유지

< 중국 70개 주요도시 주택가격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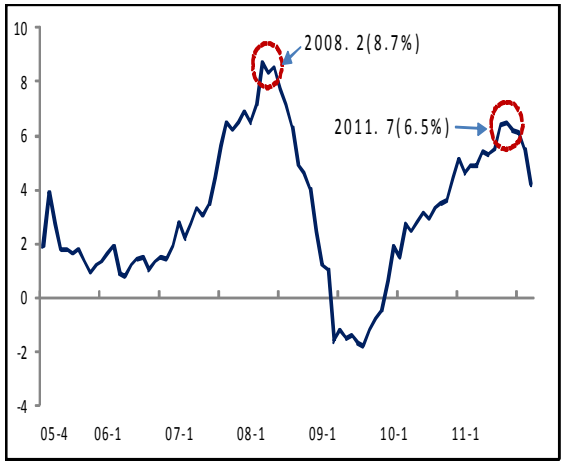
(단위 : 증가율,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CEIC.
주 : 2011년 1-11월 지수는 70개 신축과 기존 주택 가격 수치의 평균치로 대체.

< 중국 소비자 물가 증가율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CEIC.

1) 중국 정부가 2010년 초부터 부동산 과열을 제어하기 위해 실시한 주택구매 및 가격 제한 정책으로 2011년부터 둔화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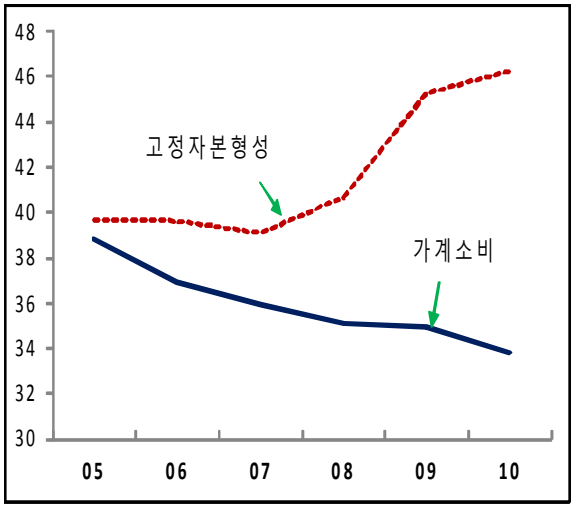
○ (과도한 투자 의존)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약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이어질 경우 과도한 투자 의존형 경제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 GDP 대비 투자와 소비 간 성장 기여도 격차 지속적 확대
  - 투자와 소비의 GDP 대비 비중은 2005년 각각 40%, 39%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각각 46%, 34%로 격차 확대
  - 이로 인해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4.4%p에서 2010년 3.8%p로 크게 약화된 반면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만일 중국정부가 물가상승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할 경우 중국 경제는 중진국함정(middle-income trap)[2]에 빠질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2년 경제 정책 운용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에 의한 원중치우진(穩中求進, 성장 속에 안정 추구) 방침을 제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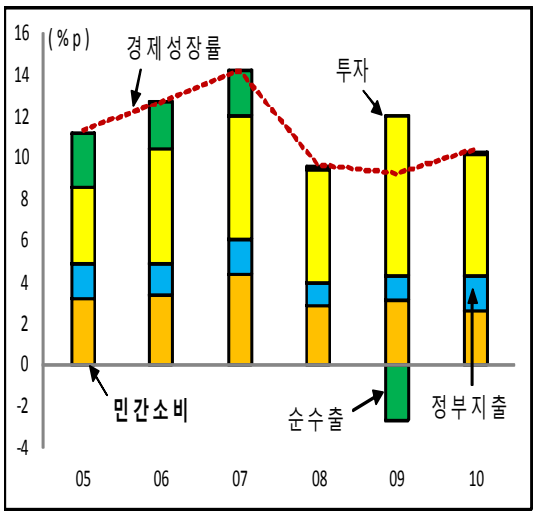
< 중국 투자와 소비의 對GDP 비중 >

(단위 : %)



자료 : CEIC.
주 : 1) 투자(고정자본형성 / GDP).
2) 소비(민간소비 / GDP).

< 중국의 부문별 성장 기여도 >



자료 : CEIC.

2) 2006년 IMF가 제시한 개념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중진국 수준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되어 정체되는 현상.

○ **(재정 부실화 우려 상존) 당장 지방부채 해결을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나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지방發 재정 부실화 우려 상존**

- 중국의 공식 국가부채는 GDP의 50% 미만으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지방정부 투자 손실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 2010년 IMF 기준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미국 94%, 영국 75%, 일본 220%보다 낮은 45% 수준에 불과
  -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는 GDP의 17%지만, 지방정부 부채는 30%에 육박

- 한편 지방정부 부채 증가는 은행 부실을 초래, 국가 재정 부실화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지방 융자플랫폼[3]을 통해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투자 손실이 부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2011~2012년 지방정부 부채 만기 상환액은 4.4조 위안(전체의 42%)으로 올해가 고비
  - 2011년 재정적자를 보이며 상환 압력이 증가하면서 향후 경기 부양에 투입될 재정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은행 대출 만기상환을 미룰 가능성도 존재

< 중국의 지방 부채 >

(단위: 조 위안)

구분	지방 재정 수지			지방 부채
	수입	지출	수지	
2005	1.5	2.5	-1.0	2.7
2010	4.1	7.4	-3.3	10.7
2011	4.8	7.4	-2.6	12.1

자료 : 중국감사원, 중국재정부.
주 : 2011년 부채는 전망 및 추정치.

< 중국 재정 현황 >

(단위: 조 위안, %)

구분	전체 재정 수지			GDP (B)	A/B
	수입	지출	수지(A)		
2005	3.2	3.4	-0.2	18.4	-1.1
2010	8.3	9.0	-0.7	40.1	-1.7
2011	10.4	10.9	-0.5	47.1	-1.1

자료 : CEIC.

3) 지방 융자플랫폼(Local Government Loan Platform)이란 인프라 건설 등 공공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정부가 설립한 금융회사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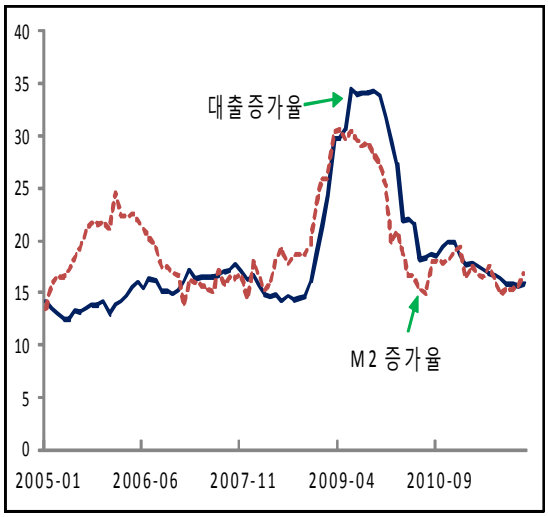
○ **(기업 금융 리스크 증대) 중국 정부의 긴축강화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장부外 거래나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그림자 금융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금융리스크가 증대할 것으로 우려**

-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 축소 및 대출 증가세 정체
  - 2010년 1월 이후 지급준비율 5.5%p 인상됨에 따라 M2 증가율도 2011년 1월 19.3%에서 12월 16.8%로 2.5%p 하락
  - 대출금리도 2010년 10월부터 5차례 인상, 대출 증가율이 2011년 말 15.8%로 동년 1월 18.5%보다 2.7%p 하락

-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확대로 인한 기업 신용 리스크 확산
  - 중국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이용 확산
  - 인민은행 원조우지점에 따르면 2011년 원조우지역의 민간사채 규모는 1,100억 위안 규모이며, 전체가구의 약 90%, 기업의 60%가 사채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발표

< 중국의 대출 및 M2 증가율 >

(단위: %)



자료 : CEIC.

<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 >

(단위: %, 조 위안)

구분	비중	규모
은행인수어음	33	5.6
위탁대출	26	4.4
민간대출	19	3.2
신용장	11	1.9
신탁WMP	10	1.7
소액금융	1	0.2
합계	100	17

자료 : Gavekal Asia 자료를 재구성.
주 : 2011.6월말 기준.

○ **(사회 갈등 심화)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정책 운영 애로 가중**

- 특권층 권력 이양에 대한 농민공 등 사회 최하층의 불만 고조
  - 민주화운동 성격의 1989년 천안문사태와 2008~2009년 티베트 및 우루무치 사태 등 소수 민족 갈등과 달리 최근 계층 간 갈등 심화에 따른 사태 빈번
  - 올 3월, 중국은 전인대에서 향후 5년간 서민형 주택 공급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표명하고 있으나 최하층 근로자에게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인식

- 사회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회적 비용 증가 뿐 아니라 각종 정부 경제 정책 운영에 큰 애로가 발생
  - 2011년 말 광동성 일대의 우칸, 하이먼, 위청지역에서 발생한 사태는 근본적으로 계층 간 갈등, 정부 정책 반대, 노사 분쟁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지속할 경우 기업 대출난에 의한 실업률 상승으로 노사분쟁 증가, 반대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할 경우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딜레마 존재
  - 또한, 부동산 시장의 대출 및 구매 규제를 지속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난 가중으로 생활난에 직면한 최하위층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음

< 중국의 대표적 사회 갈등 사례 >

구분		유형	발생원인	참가자(명)	사망자(명)
천안문사태 (1989.6)		민주화 운동	후야오방 사망	100~200만 (시민, 대학생)	2,000 (비공식: 5,000)
티베트 시위 (2008.3)		소수민족 갈등	분리 독립	600 (승려)	13 (비공식: 100)
우루무치 사태 (2009.7)		소수민족 갈등	분리 독립	1,000~3,000 (위구르족)	197 (비공식: 400~840)
광동성 시위 (2011.9)	우칸	계층 간 갈등	토지 분쟁	20,000 (농민공)	1
	하이먼	정부 정책 반대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수천명 (지역 주민)	2(비공식)
	위청	노사 분쟁	노동 환경 개선	7,000	-

자료 : 내외신 종합.

② 대외 요인

○ (수출 및 수출기업 경영 환경 악화)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생산원가 상승에 의한 수출기업 업황 악화가 중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세 약화 우려
  - IMF에 따르면 2012년 미국, 일본, 유럽의 성장률은 각각 1.8%, 1.7%, -0.5%로 여전히 더딘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2년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축소되면서 전체 수출 성장세도 약화될 전망
  - 중국의 對미주 및 對유럽 수출 및 수입 증가율도 2010년에 비해 2011년 크게 둔화

- 원자재, 임금 등 생산원가 상승에 의한 수출업체의 경영환경 악화 우려
  - 임금은 2011년 3/4분기 전년 동기대비 15% 인상되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수출업체의 자금압박 가중 예상
  - 원유 수입가(2011.12) 역시 전년동월대비 30%이상 증가하면서 수출업체의 경영난 가중

< 중국의 대륙별 수출 비중 >

(단위: %)

	아시아				미주		유럽	기타
		일본	한국	ASEAN		미국		
2005	48.1	11.0	4.6	7.3	26.0	21.3	21.7	4.1
2010	46.4	7.7	4.4	8.8	25.2	18.0	22.5	5.9
2011	47.2	7.8	4.4	8.9	24.9	17.1	21.9	6.0

자료 : CEIC.
주 : 1) 2011년(1-11월 누계치).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미국	일본	유럽
2010	3.0	4.4	1.9
2011	1.8	-0.9	1.6
2012(F)	1.8	1.7	-0.5

자료 : IMF.

○ **(對美 무역분쟁 가속화로 對美 수출 악화 우려) 향후 미국은 對中 환율절상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반덤핑 관세, WTO 제소 등을 활용하여 과도한 對中 수입 증가를 억제할 경우, 중국은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교역 축소가 예상됨**

-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0년 298억 달러에서 2010년 1,819억 달러로 급증
  · 이는 2010년 미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 6,346억 달러의 약 29% 수준

- 미국의 경우 방대한 對中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대폭적인 위안화 환율 절상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국 위안화 환율 변동 폭은 제한적
  ·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절상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나, 위안화/달러 환율은 2008년 9월 16일 6.84에서 2012년 1월 17일 6.31로 약 7% 상승한데 그침[4)]

- 한편, 지난 2009년 9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보복관세 조치 이후 2011년 12월 중국은 對美 수입차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가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양국간 무역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對美 수출 타격이 예상됨
  · 미국은 기존 4%에 불과했던 중국산 타이어 수입관세를 1년차 35%, 2년차 30%, 3년차 25%의 추가관세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2011년 10월에는 위안화 보복법안의 상원 통과, 11월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착수 등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지속
  · 이에 맞서 중국은 즉각 미국의 보복관세가 심각한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WTO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하였으며,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14일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기량 2.5l 이상 세단과 SUV 차량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미국 자동차제조사별로 2~22%)를 부과
  · 미·중 간 무역분쟁이 본격화된다면, 미국은 중국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4) 2010년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위안화를 25~40% 절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영유권 분쟁국과의 교역 악화 우려) 중국은 일본과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아세안 일부 국가들과는 남중국해 시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서, 만약 이로 인해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의 對日, 對ASEAN과의 교역 차질이 우려됨**

- 중국은 지난 2010년 9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과 영토분쟁에 돌입
  - 일본은 2012년 3월까지 센카쿠열도 주변 무인도 36곳에 대해 이름을 붙여 실효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함
  -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견제

- 한편,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일부 국가들과 남중국해 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 EU, 일본, 인도 등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이 가시화되면서 국제 정치·외교·군사 문제로 비화
  - 최근 중국은 본격적으로 해군력을 강화시켜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나, 이로 인해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이 가열될 전망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잦은 충돌을 빚고 있는 미국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해상 항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확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정치·군사·외교·경제적 확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큼
  - 일본의 경우 이미 중국과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미·일 안보협력 등을 활용하여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확보는 물론 센카쿠열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
  - EU는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 인도는 베트남과의 남중국해 대륙붕 개발 협력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영유권 분쟁 중인 파키스탄 카슈미르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 유입에 반발하는 등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분쟁 가능성이 고조

- 향후, 중국과 일본, ASEAN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이 심화될 경우, 중국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 악화가 예상됨

3. 향후 중국 경제 전망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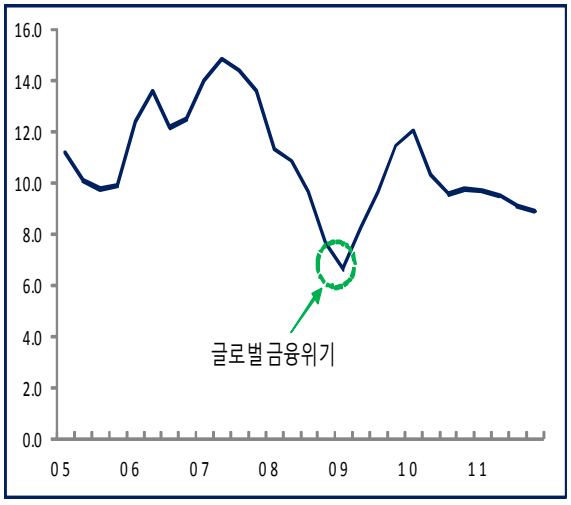
○ **(경착륙 가능성이 상존하는 중국 경제) 해외 주요 기관들 뿐 아니라 중국 정부도 중국 경제가 경착륙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

- 해외 기관들은 대내외 환경 악화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작년 9.2%보다 둔화된 8%대 내외로 예상
  · IMF, OECD, Word Bank는 2012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각각 8.2%, 8.5%, 8.4%로 전망

- 중국 정부 역시 올해 성장 목표치를 7~8%대로 낮추고 있어,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성장률이 7%대로 급락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
  · 특히, 2012년에도 대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
  · 더욱이 대내외 리스크가 가시화 될 경우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경착륙할 가능성도 상존

<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분기별, %)



자료 : CEIC.

< 세계 주요기관의 중국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F)
IMF	10.4	9.2	8.2
OECD			8.5
Word Bank			8.4
ADB			8.8

자료 : 각 기관 발표치.
주 : 2010, 2011년은 실적치.

○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만약 중국 경제가 성장률 7%대로 급락하여 경착륙 한다면 국내경제 성장률도 3% 중반대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

-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국내 실질 GDP 성장률은 0.2~0.5%p 하락 할 것으로 추정
  · KIEP,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실질 GDP 성장률 1%p 둔화될 경우, 국내 GDP 성장률은 각각 0.22~0.38%p, 0.3~0.5%p 하락할 것으로 추정
  · 또한, KIEP는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국내 수출 증가율도 2%p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중국 GDP 성장률 하락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

구분	중국 GDP 성장률 1% 하락 시	
	성장률	수출
KIEP	0.22 ~ 0.38%p 하락	2%p 하락
국제금융센터	0.3 ~ 0.5%p 하락	-

자료 : 각 기관 발표치.

4. 대응 과제

○ **(수출 안정망 구축)** 對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와 해외 활로 개척 시급

- 전기기기, 자동차, 석유화학 등 對中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해외진출 보험과 무역 금융 대출제도 확대 고려

- 주요 수출 품목의 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구매력이 높은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수출 활로 개척 필요

○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외환보유액 확충을 통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 충격에 대한 사전적 대응 필요

- 만약 중국이 경착륙으로 갈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외환보유액을 최대한 확보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2011년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3,0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국내 외환시장이 단기자금 유출입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안정적인 외환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

○ **(對中 경제협력 확대)** 정부와 민간차원의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협력 강화 필요

-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 FTA의 정부 간 협의 본격화가 예상되므로, 중국과의 경제 및 산업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의 對中 진출 확대를 모색해야함

○ **(기업 위기 대응 전략 마련)** 기업들은 중국 경착륙에 대비한 컨틴전시 프로그램(비상경영 프로그램)마련, 국가·지역별 맞춤형 전략 상품 개발, 현금경영강화 등의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02-2072-6225, hzz72@hri.co.kr)
연구위원 이부형 (02-2072-6306, leebuh@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8	0.4	1.3	1.8	-	1.8
유로 지역	1.8	0.4	1.0	0.4	0.3	1.6	0.8	0.2	0.2	-	-0.5
일본	3.9	6.0	2.1	3.3	-1.1	-0.9	-3.6	-1.3	5.6	-	1.7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한국	6.2	8.5	7.5	4.4	4.7	3.6	4.2	3.4	3.5	3.4	4.0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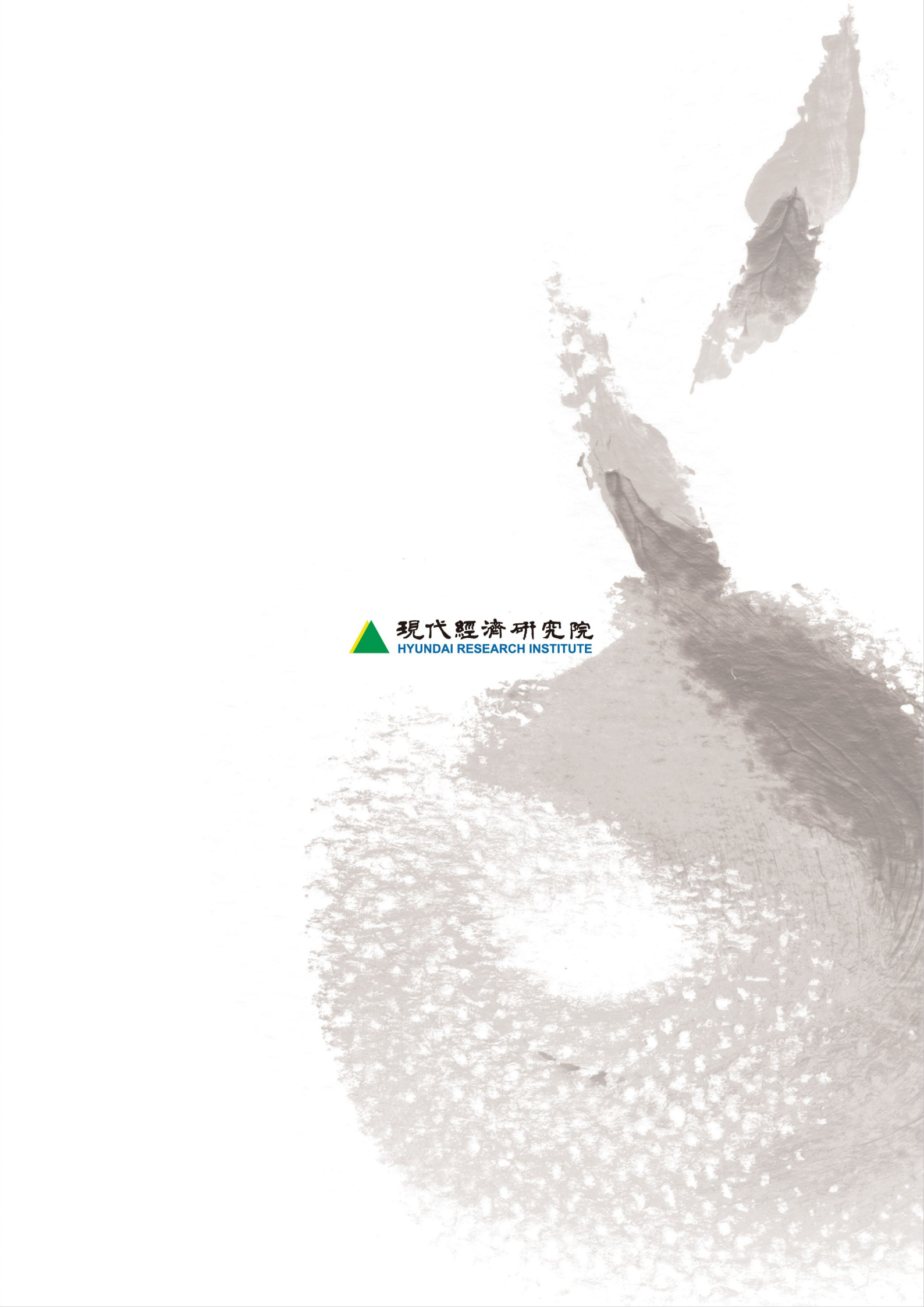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월 20일	1월 2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2.03	1.93	-0.10%p
	엔/달러	81.19	80.66	77.66	77.08	77.71	0.63￥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969	1.3106	0.0137$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720	12,735	15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766	8,849	8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40	3.40	0.00%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34.3	1,122.0	-12.3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49.9	1,957.2	7.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월 20일	1월 2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8.43	99.75	1.32$
	Dubai	88.80	106.75	104.89	109.50	108.78	-0.72$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9.91	317.42	7.51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